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023 색명, 문장학, 언어

성공회 주교의 가슴에 사용되는 자주, 퍼플(purple) 대표적 색

라벤더(lavender)는 17세기 말경에 만들어진 색명으로, 향료 식물의 꽃 이름에서 온 것이며, 아주 얇은 보라색을 말한다.

라벤더는 은어로 동성애자를 의미했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말베리(mulberry, murrey)는 라틴어의 morus와 히랍어의 moron 2가지에서 유래한 것이다. murrey는 어두운 보라색이다.

메로우(mallow, mauve)는 전구(錢葵, 우리말로 당아욱을 말함)의 꽃에서 따온 색명으로, 1611년에 표준화되었다.

모브는 메로우와 동의어로서 19세기 중엽에 표준화되었다. 어느 것이나 조금 진한 보라색이다.

무베트(mauvette)는 연하고 차분한 붉은 보라색으로, 라일락꽃의 색과 닮았다. 1856년에 발견된 최초의 인조염료로 아닐린(aniline)에서 얻는 담자색 염료이다.

바이올렛(violet)은 스펙트럼 색의 하나로, 제비꽃색에서 따온 명칭으로 파란 기미가 조금 있는 색이다. 명도가 조금 낮고, 채도는 중간에서 조금 위에 있는 색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참회, 내성적인 사람이나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을 의미한다.

본인 퍼플(born in purple)은 왕가에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보라색을 선호한 로마인들로부터 유래되었다.

세리즈(serise, cherry)와 체리(cherry) 2가지 색명의 어원은 라틴어의 cerasus이다. 색채 사전에서 cherry는 선명한 주색(朱色)으로 표시된다.

오키드(orchid)는 난꽃의 의미로, 다소 붉은 빛이 도는 연보라(light purple)색을 말한다.

퍼플(purple)은 고대 그리스시대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혼합에 만들어진 색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바이올렛(violet)은 밝기에 의하여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이올렛은 스펙트럼 색상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성공회 주교(主敎)의 가슴에 사용되는 자주(紫)는 퍼플(purple)의 대표적인 색이다.

퍼플 패션(purple passion)은 미국의 유명한 카탈레이며, 알코올 함량이 높아서 색스에 대한 망설임을 없애준다고 한다.

퍼플 패시지(purple passage)는 미사여구를 의미한다.

팬지(pansy)는 3색의 오랑캐꽃(제비꽃)이다. 최근 점점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꽃잎 대부분이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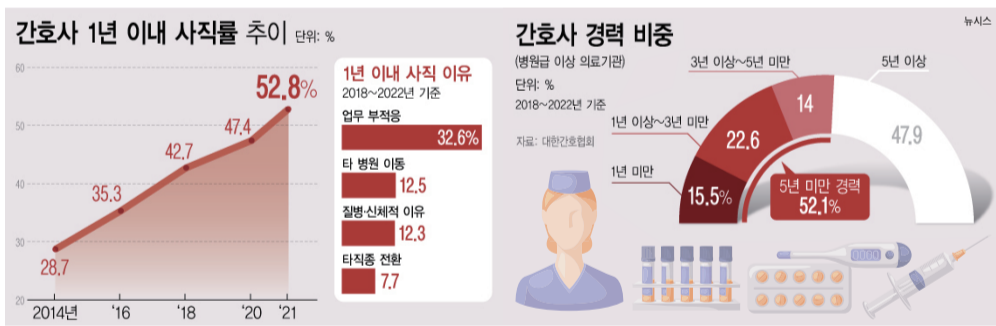
프럼(plum)은 서양의 자두로, 자두의 껍질 색에서 따온 색명이다. 남색의 진한 보라색을 나타낸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기고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공정한 행정력 집행부터

전남도청 주변에나붙은 불법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듯하다. 도로에는 군 공항 통합이전을 반대하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군 공항 통합이전 반대 단체의 불법 현수막 설치와 이를 방지하는 편파적인 행정의 정도가 지나치다.

'도로법' '교통안전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과 현수막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알고도 방지한다는 건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불법 현수막 내용은 임기초자 민망하다. '도지사는 광주의 영업사원', '전투기 연료는 발암물질'이라는 등 자극적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도배돼 있다.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현수막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미국 화재방재청(NFPA)이 각 보건 위험, 화재 위험, 반응성 영역으로 나누고 0~4까지 등급을 구분해 위험성을 표시하고 있다. 이중 전투기 연료는 등유(kerosine)로 분류되며 인체보건 위험 2등급으로 자동차 연료로 흔히 접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급과 비슷하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투기 연료보다 일상생활 속 셀프 주유로 노출이 잦은 휘발유가 건강에 더 위험하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전남도는 '군공항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근 무안 군민의 생각을 알고 싶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봤다. 불법 현수막 내용과는 다르게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군 공항 유지를 찬성하며 전남도를 응원하는 다수 군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군공항 탓에 민항기가 24시간 뜰 수 없고 생활권이 침해된

다는 등 잘못된 사실을 아는 군민들도 많았다. 물론 이 역시 오보다. 광주 군 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도 민항기는 24시간 이·착륙 가능한 공항으로 운영된다. 이미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통합공항으로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번 군 공항 이전은 민·군 개별 활주로를 운영할 계획이며 민·군용기가 동시에 이·착륙이 가능하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남·악·오룡 등 남부권역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전투기 비행시간과 경로를 협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하락 주장은 터무니없다.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방지와 편파적인 사회단체지원 등 행정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는 팩트 기반으로 군민에게 비교·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최종 뜻을 물어야 한다. 이게 바로 사람(人) 중심의 나눔과 소통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본 자세다.



기고 장경화 광주문화재단 이사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의 신념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는 '노자'의 '도덕경'에 함축된 사상을 차용한 것으로 나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다. 예술감독(이숙경)은 4가지 소주제를 통해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어떻게 현대미술로 담아내고자 하였을까? 그리고 이번 광주비엔날레가 던져놓은 미학적 화두가 어떠한 담론과 함께 사회문화, 교육적 반향을 예측했을까? 더더욱 5월 광주와는 어떠한 코드로 소통을 기대했을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전시장은 입구부터 무겁고 검은 침묵의 두려움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위태롭게 세워진 굵은 빛줄과 함께 불안한 숲을 이룬다. 숲길을 따라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바닥의 커다란 수족관과 양 벽면 대형 스크린에 흑인 여성은 남아공 전통 미술적 몸동작을 통해 삶과 죽음의 매개자로 영혼을 위로하는 원초적 퍼포먼스로 첫 장을 열었다. 다시 5월 광주의 땅자들을 전시장으로 불러드리자는 것처럼...

첫 번째 소주제인 '은은한 광륜'은 80년 5월 광주를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작가와 체험하지 못한 작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광주와 교감을 통한 현재적 시점의 재해석을 통해 미학적 저항과 시대를 기록한다. 두 번째 '조상의 목소리'는 전통적이면서 근대적 개념에 주목하고 발생하는 사회적 의문을 제3세계의 아픔과 고통으로 답하고 있다. 세 번째 '일시적 주권'은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주'와 '디아스포라' 문제에 다양한 미학적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네 번째 확장된 세계관의 반영인 '행성의 시간들'은 생태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통해 전 지구적 한계와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현대인 삶의 비판과 교훈을 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5월 광주'를 담아내는 예술적 방식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즉, '광주의 5월'을 광주에서만 찾지 않고, 광주를 떠나고 버려야 더 큰 광주를 찾을 수 있다는 문화적 신념으로 압혀진다. 즉 5월을 버리고 파괴시키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비엔날레 본전시장 출구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았다. 본전시 공간 구성의 경우 예년에 비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파티션(간막이)을 최소화하면서 전시장 내부 쾌적함을 높였으며 확대인 관람 시야까지 확보하는 등 공간디자인 측면에서 돋보였다. 특히 전시 공학적 연출로 전시 작품의 상호 충돌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동선은 관람자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에서 '물'은 광륜, 조상, 주권, 행성, 4가지 키워드로 압축하고 은은함, 목소리, 일시적, 시간들 이라는 명사와 관사, 형용사를 통해 '부드럽고 여리게'를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물'은 자연이자 곧 자아를 의미하지만 나아가 '5월 광주'는 자연과 함께 역사와 시대에 대한 예술적 접근과 치유방식으로 이해된다. 물론 현대미술이 그러하듯 상징성과 은유로 미학적 이해와 접근은 쉽지 않다. 그래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 해설서와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보다 친절하게 담론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주제와 전시장 마다 소주제별 화두의 연결을 통해 관람객이 전시장 출구를 나갈 때 어떠한 의미를 새길 것인지 예측하면서 관람객에게 보다 깊은 감동을 주는 방향으로 보다 연출되어야 할 것이다. 미술관은 물론 비엔날레 역시 높은 차원의 사회교육현장이기 때문이다.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관람객 입장을 고려하여 어려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섬세하고 친절한 장치들이 보다 개발되기를 바란다.

이번 비엔날레를 보면서 밤과 낮이 뒤바뀌는 국제 업무를 무리 없이 진행시켜온 비엔날레재단 측의 깊은 열정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광주비엔날레는 광주가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2024년은 창립 30년을 앞에 두고 있다. 지역사회와 한국미술계에 애매한 당당하고 의연하게 5월 광주 정신을 다양한 문법의 현대미술로 담아내는 광주비엔날레에 1995년 창립시켰던 실무자의 한사람으로 감사함을 더하고 싶다.

고보조사업에서 자체 예산의 의미는 단순 재원 요소가 아니라 지역민의 수요, 사업 당위성, 추진 의지, 책임 등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 설득에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가열차게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소강하는 시점에서 지금도 무안국제공항의 이용률은 저조하고 부대시설은 비어있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경영손실은 21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1300억원을 넘겼을 정도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제정과 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은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다.

과거와는 달리 광주와 국방부도 주민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파적인 정보 왜곡, 무조건적인 반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가 무안국제공항과 그 주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편파적인 행정을 멈추고 어떤 결단이 도민을 위한 길인 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